

PC-II-16. 한국인의 각화치은과 부착치은의 폭경에 관한 연구

신현승*, 홍기석, 임성빈, 정진형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현대적 치주치료의 개념에 있어서 부착치은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부착치은은 각화치은에서 치주낭을 뺀 나머지 폭경으로서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으며 하부 치조골에 견고히 부착되어 있다. 교합, 칫솔질, 이물질에 대한 손상 등에 저항을 하게 하며 건강한 치주복합체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일정하게 확립된 부착치은의 표준넓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Lang(1972), Miyasato(1977) 등은 구강위생이 좋은 사람에서는 1mm 이하라 하더라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Lindhe, Nyman(1980), Kennedy(1985) 등에 의하여 치주치료는 부착치은을 증가시켜 적당한 조직방벽을 얻어야 한다는 개념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각화치은은 전치부에서 가장 넓고 구치부에서 좁으며, 제 1 소구치에서 가장 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국인에서는 부착치은의 폭경이 나타나는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재료 및 방법

단국대학교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여 상관 없이 200명의 환자에게서 치아의 middle 1/3에서 각화치은의 폭경을 periodontal prob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각화치은의 폭경을 측정한 부위에서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하여, 부착치은의 폭경을 계산하였다. 각 치아마다 평균을 내어 비교하였으며, 남, 여간의 비교, 연령에 따른 비교, 전신질환의 유무와 부착치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무치악부는 측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초진결과 발거대상 치아 역시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결과

단국대학교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초진환자 2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부착치은의 폭경은 2.8mm 였다. 상악의 평균 부착치은의 폭경은 3.0mm였으며, 하악의 부착치은의 폭경은 2.6mm로 상악 협측의 부착치은의 양이 하악에 비하여 많았다. 전치부에서 가장 넓었으며, 구치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4분악 거의 모두에서 제 1 소구치 부위에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에서 평균 3.3mm로 여성의 2.6mm 보다 높았다. 또한 30대에서 2.68mm, 40대에서 2.71mm, 50대에서 2.55mm, 60대이상 3.78mm의 평균을 보였다. 또한 전신병력을 한 개이상 앓고 있는 사람이 3.7mm의 폭경으로 건강한 사람 2.7mm보다 넓은 부착치은의 양을 가지고 있었다.